

엔저에도 실적이 개선되지 않는 일본 전자업계

- 엔저로 인한 수입 원재료 가격 상승, 환차손 등으로 소니, 파나소닉, 도시바 등 일본을 대표하는 전자 기업들이 고전하고 있음
-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들은 엔저로 인한 수입원재료 비용 상승을 수출가격 인상을 통해 커버할 수 있는 여력이 적은 반면,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수출가격 인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여력이 크기 때문에 기업간 또는 업종간 경쟁력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

- 엔화 환율이 4년 7개월 만에 달러당 102엔대를 돌파함에 따라 제조업 전반의 즐거운 비명과는 달리, 경쟁력이 상실된 일본의 전자 업계는 엔저의 디 메리트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

□ 파나소닉

- 파나소닉의 경우 과거에는 달러당 1엔 엔저 시 60억~70억엔의 영업이익 증대효과가 있었으나, 2013회계연도에는 20억엔으로 축소
- 아베노믹스 효과에 의한 엔저, 미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달러고도 겹쳐, 앞으로 달러당 100엔 수준이 엔고의 상한이 되기 쉬울 것이라는 견해
- 일본기업이 겪었던 6重苦의 하나인 엔고 흐름이 엔저로 반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, 수출기업을 대표하는 전자업계는 별로 환영의 기색이 없는데, 엔저의 메리트 못지않게 디 메리트도 크기 때문

- 파나소닉은 13년 2분기 실적이 3분기 만에 흑자로 전환될 전망이다, 이는 고정비용의 삭감 등 구조조정의 결과임
- 엔고 대응을 위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해왔는데, 외화표시 채권과 채무가 상쇄됨으로써 환리스크에 노출된 달러 자금의 잔고가 줄고 있음
- 점점 줄고 있는 엔저의 영업이익 증대효과는 13년 2분기에 더욱 축소되어 10억엔에 그칠 전망
- 에어컨은 일본 국내 판매량의 80%를 중국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위안화에 대한 엔저는 오히려 마이너스효과가 큼

□ 소니

- 소니도 엔저가 영업이익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고 있음
- 중국에서 생산된 스마트폰은 달러표시로 수출하고 있는데, 달러당 1엔 엔저 시 영업이익 전체로 30억엔의 환차손이 발생
- 2014회계연도에는 2,300억엔을 예상하였으나, 상정 환율을 달러당 90엔 전후로 보고 있어, 엔화 환율이 100엔 전후로 추이하게 되면 영업이익의 300억엔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
- 10년 만에 주력품목인 TV사업의 흑자를 달성하려 하고 있으나, 금년에는 세계 TV수요가 늘지 않을 것이란 조사결과도 있음

□ 도시바

- 소니와 마찬가지로 TV사업의 흑자를 목표로 하는 도시바도 일본

국내에만 국한하지 않고 미국에서도 TV사업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음

- 아시아시장에서 고가 기종을 투입하여 채산성을 개선하고 있으나 경쟁압력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

□ 경쟁력 여부가 환율변동 효과에 관건

- 엔저로 인하여 원재료와 부자재의 수입코스트가 상승하더라도, 이를 판매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정도의 경쟁력이 있다면 환율 채산성은 악화되지 않음
- 그러나 일본의 전자업계가 해외 라이벌과의 경쟁에서 열세에 있다는 것은 파나소닉의 결산을 보면 알 수 있음
- 일본의 전자업계는 과거 엔고 시에 재료의 수입코스트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가격경쟁에 휘말려 그 메리트를 누릴 수가 없었음

□ 전자관련 업종의 교역조건 악화

- 교역조건 측면에서 보면, 전기기계, 정보통신기기, 전자부품분야의 교역조건(수출가격/수입가격)이 점차 악화되고 있음
- 교역조건 추이를 엔화 환율과 대비해보면, 2004~2007년 20엔 이상 엔저진행 국면에서 많은 산업들이 제품가격을 인상할 수 있을 정도의 우위성은 갖고 있지 못해 교역조건이 악화
- 리먼 쇼크가 발생한 2008년 9월 이후, 엔고가속 국면에서는 많은 업종에서 수입코스트 하락으로 교역조건이 개선되었으나, 전자업

중 만은 여전히 악화경향을 보임

- 역으로, 최근 20년 교역조건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추이를 보인 정밀기계와 일반기계, 수송기계 분야는 이제까지 해외시장에서 일정부분 경쟁력을 유지해옴
- 예를 들면, 정밀기계 관련 대표기업인 니콘은 이번 분기 이익이 대폭 늘어날 전망
 - 고부가가치·고가의 렌즈교환식 카메라 매출에 주력하는 한편, 고전해 온 콤팩트디지털카메라도 코스트절감으로 수익을 높여 세계판매대수에서 최초로 수위를 차지
- 기계 분야에서는 구보타가 2분기 영업이익이 6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, 동남아와 미국에서 농기계가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
- 자동차로 대표되는 수송기기도 일본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업종임
 - 후지중공업은 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영업이익이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
 - 아시아 시장에서 호조를 보이고 있는 스즈키는 순이익이 과거 최고치를 기록한 전기에 이어, 2분기에도 순이익에 더하여 영업이익, 경상이익도 과고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

□ 엔저에 의한 경쟁력 격차 확대

- 이와 같이 수출기업이라도 본업으로 세계시장에서 선두를 달릴 수 있는 기업들은 결과적으로 환율 변동의 영향을 받기 어렵다고 할 수 있음
- 본업에서 고전하는 전자업계는 환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

- 다수의 일본기업들은 6월 발표될 성장전략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으려 하고 있으나, 정책적 효과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 자신의 경쟁력강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
- 엔저가 제조업분야에서의 업종간, 기업간 경쟁력 격차를 벌려 놓기 시작하고 있음

□ 시사점

- 가전업계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전자업계가 추락할 정도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 지 상당 기간이 경과
- 이 같은 현상은 엔저를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과 경쟁력이 없는 기업간 양극화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음
 -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은 엔저로 인한 수입원재료 비용 상승을 수출가격 인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여력이 적은 반면,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은 수출가격인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여력이 크기 때문에 기업간 또는 업종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
- 이는 환율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 부단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사례임

<참고자료>

NIKKEI BUSINESS(2013.5.20)